

【스포츠의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바뀌는 이 시기, 시청에서는 여름의 각종 경기의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여러분이 보고차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실이 활기가 됩니다.

이 한 주간에, 전국 일본 초등학생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오카야마 대표팀과 세계 소년 야구 대회의 일본팀의 일원으로서 세계 우승에 공헌한 이시이 중학교 3년의 나카타 코다이 군, 고교 대회 수영 남자 100m 평영과 200m 평영에서 중국지역 고등학교 신기록을 수립하여 두 종목 제패를 이룬 간사이 고등학교 3년 히노모토 유야 군, 그리고 전국 중학교 체육 대회 육상 남자 800m에서 우승 한 키비 중학교 3년 나고 나오키 군 등 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여러분 총명하게 눈도 빛나고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도 뭔가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손쉽게는 지난해 6월까지 매주 클럽에 다니며 땀을 흘렸던 테니스와 몇 년 전까지 즐기고 있던 골프 등을 재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지금은 오십견으로, 특히 왼쪽 어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재해 훈련에서도 지진시에 양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했는데, 왼손을 머리 위에 올린 순간 어깨가 아파져 와 참을 수 없을 정도로(카메라가 이쪽을 찍고 있었음을 알았기에 참고 또 참고), 스포츠를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상황. 당분간은 아침 산책 (만보계 평일 8,000 보, 주말 12,000 보가 목표)에 의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별도 문제. 여러 스포츠를 관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쿄에 있을 때는 다니던 테니스 클럽 강사의 영향도 받아 매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 「전 일본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보러 가거나, 친구 구장에서 고교 야구나 대학 야구를 보았습니다.

오카야마에 돌아온 지금은 화지아노 오카야마 경기 관전에 빠져있어 4번 정도 경기장에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밤의 칸코 스타디움은 최고. 아들과 함께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전개가 빠른 경기를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90 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외에도 오카야마에 시가루즈 나데시코 리그, 소년 야구 등 매력적인 스포츠가 많이있어, 향후 관전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